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향한 쉼 없는 여정

지속가능한 농어업을 이끄는 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컨설팅

글 기시윤 **사진** 박기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민 먹거리의 수급을 책임지는 공공기관으로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해왔다.
반세기 넘는 여정에서 가장 최우선시 된 가치는 안전보건경영.
대한산업보건협회로부터의 컨설팅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되었다.

안전한 aT를 만드는 원동력
현장 중심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1967년 농공 간의 소득 격차 완화를 위해 '농어촌개발공사'로 발족한 aT는 1986년 '농수산물유통공사'로 확대 개편한 이후, 2012년 현재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사명을 변경했다. aT에 주어진 임무는 도매시장육성 및 유통조성사업, 수출진흥 및 농수산식품소비촉진 등을 통해 농어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일이다. 식량위기가 전 세계 화두로 부각되고 있는 오늘날,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우리 땅의 성장 동력을 발굴해 지속가능한 농어업을 이끄는 것도 aT의 막중한 역할이다. 물론, 이 모든 활동은 탄탄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

"전시컨벤션센터인 aT센터를 비롯해 명실상부 국내 최대의 화훼시장인 aT화훼공판장, 전국 14개에 분포된 농수산물 비축기지 등 공사가 관리·운영하는 시설 모두는 안전보건 부문에 자칫 조금의 틈이라도 발생할 경우 큰 사고·재해로 이어지기 쉬운 구조입니다. 만에 하나 있을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안전보건팀 김병철 부장은 안전사고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aT의 방침은 '현장 중심 안전보건경영 시스템'이라고 말한다. 사업장별 특성에 맞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해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민간에도 안전보건문화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2021년에는 노사 합동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수립되기도 했다. 이는 전사 차원의 안전보건 인식을 높이는 데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다.

다양한 인증제도가 입증하는 aT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우수성

aT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우수성은 다양한 인증제도가 방증한다. 우선 2019년 산업재해 및 질병 예방 시스템에 대한 엄격한 심사 끝에 주어지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제인증인 ISO 45001을, 국내인증 KOSHA-MS를 각각 획득해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시 노동자 스스로가 유해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굴·제거·관리하는 데 중점을 둔 매뉴얼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10월에는 광주전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최초로 전 사업장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을 취득한 바 있다.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발급하는 인증제도로 사업장 위험성평가 실시 후 엄격한 인증 기준에 따라 인정서가 발부된다.
"aT센터 및 화훼공판장, 농수산식품유통교육원을 비롯한 11개 지역본부 및 14개 비축기지에 대한 위험성평가가 실시됐습니다. 기계 및 전기 설비의 점검·관리 상태, 작업방법·행동 등 사각지대 안전점검을 통해 개선사항이 도출됐죠."

이때 안전보건팀이 촉각을 세운 부분은 각 사업장 안전관리담당자들과 긴밀한 의사소통과 협업이다. 본사 안전보건부문 인력만으로 모든 사업장을 관리·제어할 수 없는 까닭이다. 안전보건팀 기민 과장은 "개선사항 도출 이후에도 본사 차원의 월별, 분기별 점검이 계속되고 있다. 안전관리담당자 대상 교육도 정기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한다. 지난 4월에는 1박 2일간의 역량강화 교육도 있었다. 심폐소생술, 지진재해 VR체험 및 탈출 등 참여형 교육을 통해 시설 담당자들은 안전보건의식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었다.

대한산업보건협회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조금도 빈틈없게! 더욱 완벽하게

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독보적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는 aT가 대한산업보건협회로부터 받은 컨설팅은 '화학물질 위험성평가'다. 지난 3월 본사 시설관리·미화 업무를 담당하는 자회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는데, 이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더욱 빈틈 없이 구축하고자 마련된 일이다.

"본사 직무는 사무·관리직으로 구성돼 있어 눈에 띄는 유해위험 요소는 찾아볼 수 없는 편입니다. 하지만 청소노동자의 건강관리 이슈가 부각되면서 화학물질 위험성평가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화학물질 컨설팅하면 대한산업보건협회 아닌가요?"

김병철 부장은 컨설팅의 가장 만족스러운 점으로 협회의 특화된 전문성을 꼽는다. 컨설팅 덕분에 화학물질 관련 내부기준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한다. 협회의 컨설팅은 매우 세심하게 진행됐다. 락카스프레이·락스류·농약류 등의 화학제품을 사용할 경우 방진마스크 대신 방독마스크 착용을, 소변기 세척 시 락스보다 독성이 낮은 요석제거제를 대체 사용할 것, 청소 용품 및 오일류 보관 시 하중으로 인한 누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용기 받침대를 설치할 것 등 노동자들이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일을 면밀하게 살펴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덕분에 aT 시설관리·청소노동자들은 어제보다 안전한 일터에서 오늘의 삶을 일궈가고 있다.
aT는 앞으로도 모든 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의 빈틈을 찾아, 그 체계를 더욱 탄탄히 만들어갈 예정이다.

Mini Interview

aT 안전보건팀 김병철 부장

Q. aT의 안전보건경영 철칙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국가와 국민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 국민과 노동자의 안전보건을 최우선의 가치로 현장 중심의 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aT 안전보건경영 철칙으로 부사장 직속 조직인 안전보건팀이 안전보건부문 실행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Q. 안전보건경영 부문 aT 다짐을 말씀해주세요.

A. 그동안 위험성평가를 통해 도출된 개선점들이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사업장 관리·감독 체계를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 안전 문화가 aT 사업장뿐 아니라 국민에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쳐갈 것입니다.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aT,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aT가 되는 데 안전보건팀의 역량을 집중해나가겠습니다.